

한국 현대미술 대가 최인선, 고향 광주서 대규모 개인전

내달 25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 '회화의 고백' 주제로 27점 전시
대작 중심...추상회화 정수 선배
'생명력' 가득, 압도적 경험 선사

“회화는 생각의 어부가 돼 사고의 조각을 건져 올리는 일이다. 이번 전시는 거짓 없이 화폭 앞에 진실하고자 했던 모든 생각의 서사이자 표현이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최인선 작가가 고향 광주에서 15년 만에 개인전을 갖는데 대해 이같은 감회를 밝혔다. 다음달 25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최인선 개인전 '회화의 고백'에서는 200호 크기의 대형 추상회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총 27점이 전시돼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최 작가는 광주에서 태어나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호남 출신이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 자리를 맡은 건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고 김환기 화백이 1960년대 재직하던 이후 그가 처음이다.

정용화 GIST 부총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고향이 주는 따스한 기운 속에서 회화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마음껏 펼친다.

역동적인 스펙트럼을 지닌 그의 작품 세계는 '생명력'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최인선 작가.

것을 향한 시도와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는 창작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생성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최 작가의 1990년대 말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 회화의 맥을 잇는 한편, 그 위에 새롭게 구축된 추상 회화의 확장된 가능성이 중심에 선다.

그의 작품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등 인간 정신의 다양한 기제가 하나의 화면에 응축된 결과물이다. 생각이 예술이 되고, 회화가 그의 몸이 되어 버린 일상에서, 치열한 작가주의 정신으로 드러난 작품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한 존재의 심



최인선 작가가 대형 회화 작품을 작업하는 모습.

작가 제공

오한 무계를 성찰하게 만든다.

특히 그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꼽은 미술관 2층에 전시된 붉은 나뭇잎을 그린 소품은 이러한 철학을 다시금 일깨워준 에피소드가 담겼다. “완성된 줄 알았던 그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흰 평붓의 짧은 터치로 그 바람을 캔버스에 안착시켰다. 회화는 늘 그림 밖의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회화를 단순한 형상 표현이 아닌, '사고를 조각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회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본질적 질문에 전착한다.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 비가시적 세계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작업인 셈이다. 화폭에 대형 추상화를 그릴 때 온도, 습도, 바람 등 환경 전체가 작품의 일부가 된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그림이 되지 않게 그려 그림임을 증명하는 엉뚱하고 어색한 행위 속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부터 새것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최 작가는 예술가로서의 진실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캔버스 앞에 숨김 없고 거짓 없는 오롯한 자기표현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집념이다.

최 작가는 1990년대 초 대한민국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

전에서 연이어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미니멀 추상 작업으로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작가의 '겨울에 생선된 흰색'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며 한국 미니멀 아트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작가의 작업은 무채색 중심의 미니멀 추상에서 벗어나 '색면의 시대'를 거쳐, 다채로운 색채와 현대적 큐비즘의 면모를 보이는 '미술관살내' 시리즈로 확장됐다.

그의 작품은 뉴욕 소더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낙찰되며 국제적 인지도를 얻게 된다. 강렬한 필획의 컬러풀한 색채와 형상을 통해 격정적인 작업을 선보이며, 마치 작가로서의 한계를 실험하듯 열정적인 창작의 세계를 펼쳐 가고 있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2018년 사단법인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을 설립, 매년 청년작가 7명 내외를 선정해 예술상을 수여하고 예술장학금 및 창작지원금(1명당 1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7억원의 사재를 들여 어린이·노약자 의료비에도 기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쳐 왔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다음달 2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다음달 4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예정돼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715-262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자**

무속음악의 향연... '굿음악축제'

19~21일 국립남도국악원 일대서
일본·베트남 전통 굿음악 첫 초청
다채로운 공연·학술회의·부대행사

무속의 본고장 진도에서 국내외 굿음악이 만나는 뜻깊은 축제가 열린다.

8일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9~21일 '2025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남도국악원 일대에서 열리는 올해 굿음악축제는 '아시아의 굿음악: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학술회의, 대담 및 부대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국내를 넘어 해외 굿음악 공연팀을 초청해 굿음악의 세계화와 아시

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외팀 공연은 일본 신화의 고장 미야지키현 다카치호 농촌마을에서 밤새 가무(歌舞)로 신을 모시는 일본 전통 마을 제사 의식인 '다카치호 가구라'로 19일 오후 7시 축제의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어 20일 오후 7시에는 베트남의 대표 무속의례인 '렌동'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공연팀은 총 3팀이며, 전통 무속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우리소리바라지의 '입고출신', 동해안별신굿 기반 창작공연인 박범태와 굿프렌즈의 '고을마기', 망자의 천도를 기원하는 국가무형유산 남해안별신굿보존회의 '통영오귀새남굿'이 이번 축제에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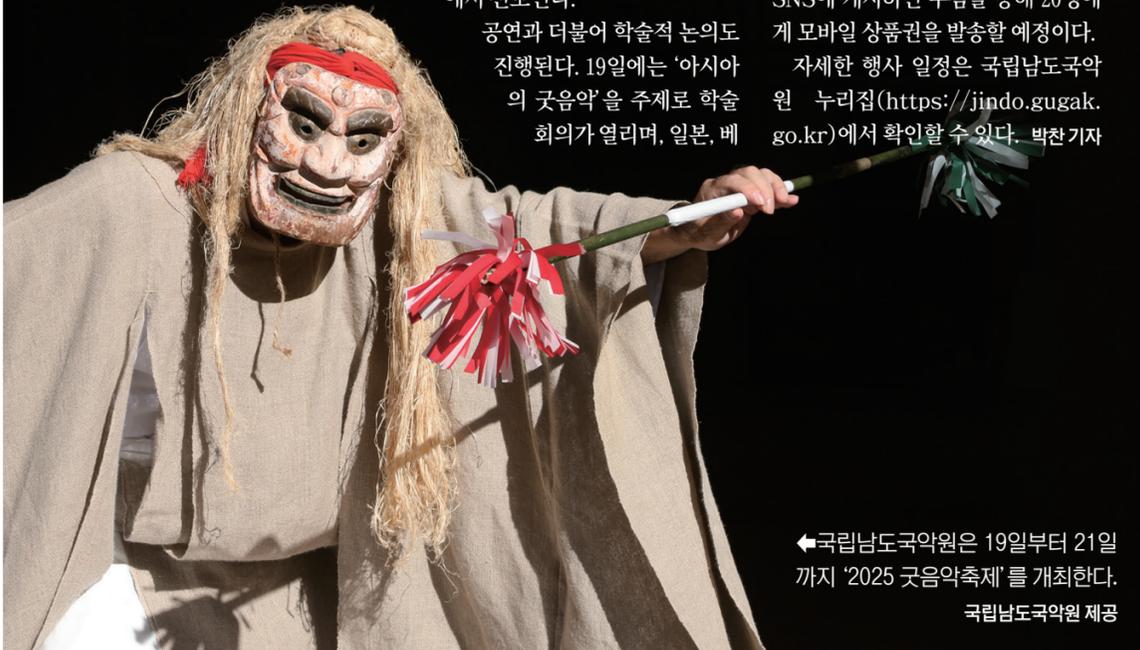
공연과 더불어 학술적 논의도 진행된다. 19일에는 '아시아의 굿음악'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리며, 일본, 베

트남,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굿과 음악을 비교해 문화적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다. 또한 20일 오전 10시에는 일본과 베트남 공연팀의 예인과 대담 시간을 마련해 각국의 무속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눌 전망이다.

공연과 학술행사 외에도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부대행사는 사주·타로 보기, 부적 만들기, 인생네컷, 페이스페인팅 등의 체험과 진도 특산물 시식·판매 푸드트럭 등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5 굿음악축제'는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축제 참여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2025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길고양이 모티브로 펼친 '제2회 모루展'

18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서
머그컵 꾸미기·팝업스토어 등

학생들의 사랑으로 키운 길고양이를 모티브로 지난해 6월 '모루展'을 기획했던 광주대학교에서 제2회 모루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의 주인공으로 지난 2022년 11월 광주대 극기관 1층 금속공예실에 우연히 발견된 '모루'와 함께 지난해 여름 어미를 잃고 기아자동차 모닝 아래서 죽어가던 아기 고양이를 대학원생들이 발견해 알뜰살뜰 키운 '모닝'이가 새 가족으로 합류했다.

전시에서는 'Good모닝&모루'를 주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용품전과 팝업스토



박찬진 작 '굳이 넓은 공간 놔두고 거기들 어가서 돌이 뭐하는데'. 광주대학교 제공

어를 진행한다. 학생들과 모루&모닝이와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작품들부터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용품이 전시 및 판매되며, 사전 접수를 통해 머그컵 꾸미기도 진행된다. **박찬기자**

판소리에 빛과 그림자 입힌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

단어·장단 등 어린이 맞춤형 제작

어린이 관객들에 맞춰 단어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장단을 단순화해 제작한 판소리 무대가 마련된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 따르면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전통문화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ACC 난생처음 시리즈'로 기획된 '와그르르 수궁가'는 관객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연이다. 어린이들이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구절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꿨다. 장단도 단순히 구성해 어린이 관객이 소리꾼과

함께 호흡하며 추임새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전통의 빛과 그림자가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민화, 산수화, 궁중 장식화 '일월오봉도' 등의 전통 문양과 탈춤 속 사자 가면 등을 재활용품으로 만든 인형이 무대 위에 그림자로 펼쳐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와그르르 수궁가'는 27일 오전 11시, 2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9일 오후 2시 등 총 4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며, 27일 공연은 특별 할인된 가격인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기자**